자비로 하나돼 위기 넘기자

이원욱 국회 정각회장



우리는 자비심으로 하나 되어 위기를 넘어서야 합니다. 서로의 주위를 살피고 온정으로 함께해야 합니다. 불자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이웃에게 나눠주고 선함을 행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회에서는 정각회가 앞장서겠습니다. '화쟁'의 가치로 화합하겠습니다. 상생의 정치, 봉사의 정치를 구현하겠습니다.

시련과 풍파를 겪어낸 들꽃은 더욱 강해진다고 합니다. 지금의 위기 역시 부처님을 닮아감으로써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비·화쟁의 정신이 퍼져나가 사회 곳곳의 갈등이 해소되고 상생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기대합니다.

교육 혁신의 새 미래 열 것

윤성이 동국대 총장



지난 한해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혼란과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대외적으로는 불교계에서 한국불교의 중흥과 국난극복을 위한 천막결사와 만행결사가 원만히 회향되어 미래불교를 향한 연꽃이 활짝 피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는 대학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가파르게 하였고 교육 전반의 디지털화를 가속시켰습니다. 대학 전반의 창조적 혁신을 위해 동국대는 미래사회와 학생들의 수요에 적합한 교육체계와 교육방식의 획기적 변화를 반드시 일으켜 나아가겠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통해 동국대 미래를 밝혀야 합니다. 동국가족 및 불자 여러분 모두가 부처님의 가피 아래 행복과 건강이 항상 함께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청년도량의 원력 보태주길

이영경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



사회가 어려울수록 그리고 변화가 격심할수록 우리 사회가 지키고 추구해 온 가치는 더욱 절실해집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지방대학에 더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불교의 내일을 이끌어 갈 미래 청년 인재를 양성하는 산실임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더 힘들더라도 불교 천년을 기약하는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청년도량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청년도량을 꿈꾸는 동국대 경주캠퍼스 행보에 더 많은 불자님들의 관심과 원력을 보태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신축년 새해에는 불자님들과 국민이 더욱 건강하시길 동국대 경주캠퍼스 구성원이 다함께 기원합니다.

자비 지혜 갖춘 인재 양성

정용덕 금강대 총장



어찌 보면 이 펜데믹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그동안 인류가 문명 진보라는 이름하에 추구해온 삶의 방식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찰 과정에서 불교의 가르침이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금강대는 2002년 창립 이후 미국의 기숙형 '리버럴 아츠' 대학을 벤치마킹하면서 소수 정예의 동량재들을 양성해 오고 있습니다.

긴 숙성 기간을 요하는 교육 분야에서 18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학생 수 대비로는 가장 많은 유학생과 공직자를 배출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금강대는 자비와 지혜를 갖춘 진정한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앞으로도 매진할 것입니다.

미래 심인진리 인연 심자

장익 위덕대 총장



위덕대는 이제 올해로 개교 25주년을 맞게 됩니다. 지금까지 거친 풍파 속에서도 굳건하게 종합대학으로서의 위상을 지키면서 진각 종립대학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사 중에 최고의 불사는 교육 불사라고 하듯이 교육을 통해서만 사람이 성숙되고 변화할 수 있으며, 진리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심인 진리로 나아가는 인연을 심는다는 각오로 모든 교직원들이 함께 정성을 다하는 공감의 교육을 통하여 최선을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새해 새 희망으로 모든 분들의 마음의 안락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우보호시 자세로 알찬 한해를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신축년 새해에는 새롭게 구성된 중앙신도회 제27대 집행부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며 각오를 더욱 새롭게 하고 종단외호에 더욱 더 앞장서겠습니다. 모든 불자들이 한국불교의 큰 주춧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도조직을 공고히 해 나갈 것이며, 신도대의기구로서의 가장 큰 역할인 삼보를 외호하며, 전국의 교구신도회와 신도단체의 구성원들이 함께 본분을 다하는 신도회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계시는 법우 여러분, 신축년 새해에는 우보호시(牛步虎視)의 자세로 불자로서의 자긍심을 일깨울 수 있는 알찬 한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중도로 공동체 행복길 이끌자

손창동 공무원불자연합회장



매년 정초 해돋이를 보면서 새로운 설렘과 희망으로 새해를 맞이해 왔지만 올 새해는 전 세계 인류공동체가 직면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이 가볍지 않습니다. 이런 때 일수록 우리 공무원 불제자들은 국민들을 희망으로 이끌어 줄 한 줄기 빛,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실천하여 나라와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 불자들은 유(有)와 무(無), 두 극단을 떠난 '중도(中道)' 원리에 따라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바른 도리로 우리 사회 공동체를 조화와 행복의 길로 이끌어 나갔으면 합니다.

성찰 통한 절제 삶 살자

김성규 교수불자연합회장



1700년대 1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숨 가쁘게 300년을 달려왔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제까지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부를 누리며 편리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과 정신의 괴리로 정신적 공황을 앓고 있으며, 급속한 개발로 지구의 온난화는 가속되어 환경이변이 속출합니다. 이제는 숨을 가다듬고 자정을 할 때입니다. 2021년 맞으며 우리 모두 심우도의 성찰을 통한 절제된 삶으로 또한 정진하는 마음으로 회구합시다. 자기성찰만이 황폐한 정신을 일으키고 병든 지구를 치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 우주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봉사일념으로 한해 임할 것

류재환 병원불자연합회장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불자의 신행활동도 저희 전국병원불자연합회 의료봉사도 정지되고 멈춘 한 해였습니다. 봉직 중인 병원 불자 회원들과 일반 불자 모두 감염을 조심하며 열심히 개인 신행활동과 봉직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또 다른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기를 기대하며 부처님 가피가 두루하길 기도합니다. 내년에는 올 한해 못한 의료봉사를 더 박차를 가해 봉사일념으로 부처님의 자비롭고 깨끗한 마음으로 지속적이고 충실한 의료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 우리 회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스포츠 포교로 위상 높일 것

문홍식 체육인불자연합회장



도쿄올림픽이 연기되었습니다. 불리한 여건에서도 훈련을 게을리 하지 않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는 우리 체육인 불자들은 연기된 도쿄올림픽에서도 갈고 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할 것으로 믿습니다. 스포츠를 통한 신체 균형의 발달은 순수하고 올바른 부처의 정신을 키웁니다. 스포츠의 포교로 불교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신축년 새해에도 우리 체육인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피로 정진 또 정진하겠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며, 부처님의 가피로 모든 일들이 소원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 풍성한 결실 맺어지길

방창덕 조계종 포교사단장



코로나19로 어려운 한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일수록 과거 호국불교 정신을 되살리고 대덕 큰스님들의 지도와 법우님들의 수행력으로 코로나19로 위축된 기운을 말끔히 씻어내어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신축년 새해는 소의 해입니다. 소는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인내심이 강한 동물입니다. 우리 법우님들 모두 새해에는 조금은 우직하나 기다리면서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여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풍성한 결실이 맺어지기를 5천여 포교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웃 아픔 치유에 앞장설 터

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장 선업 스님



신축년 새해는 더불어 기뻐함을 뜻하는 수희공덕의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를 '우리'로 만들고 '나만'을 '우리서로'로 모아가는 기적의 한해가 되기를 발원해 봅니다. 어려운 이웃들의 심리적 아픔을 치유해 온 '불교상담개발원'과 '자비의전화'는 올 한해 불교적 명상에 기반한 심리상담을 통해 돌봄 중심의 보살행을 실천하겠습니다.

더불어, 불교자살예방사업과 스마트 쉼을 비롯한 각종 중독 예방사업, 그리고 프로그램 연구개발과 현장맞춤형 서비스 확대 사업 등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중흥 초석 다지는 한해로

이재홍 국제포교사회장



국제포교사회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내외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포교하고, 한국불교의 국제화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 간의 협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포교사회는 지난 20여 년간 축적해온 좋은 전통을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점은 개선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첫째, 교육, 법회, 행사의 수준을 질적·양적으로 향상시켜 나아가겠습니다. 둘째, 회원들의 포교 역량을 강화하여 참여와 봉사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제도를 정비하여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국제포교사 여러분들과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합니다.

행동하는 교육 맥 잇자

김화연 전국교사불자연합회장



올 한해 교사불자연합회원님들은 종지와 종풍을 받들고, 부처님 정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만 인류의 스승이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행복한 교육활동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절일수록 대자대비의 발심으로 모든 대중이 도반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수행의 실천, 그리고 교사불자회 활동에 동참이 필요합니다. 이제 불교도 행동하는 불교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교육자들은 더욱 더 부처님의 기르침을 행하고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단체로서 매김을 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새해에는 행동으로 하는 수행생활, 전법활동으로 현대 교육의 맥을 찾아갈 수 있으면 합니다.

청년 포교 사명에 응원을

윤정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



지난 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의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변화를 겪은 한해였습니다.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상황 속에서 저희 대학생 청년 불자들도 전환의 시대를 보냈습니다. 비대면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배우고 함께하려 했습니다. 영부디스트캠프와 수계법회, 정기법회 등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온라인 포교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대학생 청년들에게 새로운 방법으로 한발 다가서려 노력했습니다. 2021년 새해에도 대불련은 변함없이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대학생 청년 포교와 전법의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국난극복 청년불자가 앞장

하재길 대한불교청년회장



중생의 고통을 멸하기 위한 부처님의 가르침인 '자비'는 계층 간 갈등이 겹쌓인 우리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치료제와 같습니다. 나를 위함이 아닌 상대방을 위한 방역준수는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자타불이 정신의 실천적 보살행이며, 불교를 통한 사회적 치료제가 될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하는 우리 국민의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은 결국 국난극복의 단초가 될 것입니다.

국민들과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불교가 되도록 우리 청년불자들이 항상 앞장서겠습니다. 모든 불자님들의 건강과 안녕을 바라며,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초발심으로 교육현장 정진을

백미나 전국교법사단장



코로나상황은 이어지고 있고 작년 초부터 전국불교종립학교 교법사님들은 비대면회의와 자체SNS를 통해 코로나 시대를 맞아 급변한 교육현장에서 건학이념구현을 위한 교화활동과 불교학생회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연수를 통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포교원의 지원으로 150여 명의 전국 불교종립학교 불교학생회 임원들이 줌으로 실시간 활동을 하고 구글로 과제, 질문, 피드백도 했습니다. 부처님 재세시 불법(佛法)의 불모지를 향해 전법서원을 하신 것처럼, 현대의 부루나존자가 되기를 서원한 우리교법사들은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아 우리의 제자들이 부처님 닮기를 발원하며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주인으로의 삶 살아갑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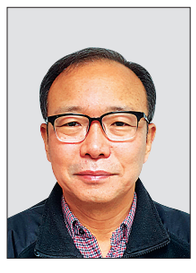
남창현 한국세무사불자회장



코로나19 라는 예견하지 못한 일로 다사다난한 2020 경자년 쥐띠해는 너무나도 힘들게 흘러갔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 2021 신축년을 맞이하며 흰 소의 근면성실을 본받아 부처님이 깨닫게 하여주신 연기 원리를 실천합시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닌 동체대비의 정신으로 환경을 생각하고 자연을 보호하며 코로나19를 조기에 종식시킵시다. 이를 위해 우리 불자들은 가일층 일상의 수행 정진으로 순간 순간 끊임없이 알아차려야 할 것입니다. 고통을 여의고 복락을 누리는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세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앞장서서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갑시다.

정언정행 일치로 코로나 해결을

표만석 언론사불자연합회장



요즘 사회를 보면 서로의 입장에 따라 대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정치계는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해 여야의 쟁투가 더 격화될 듯합니다. 경제계는 미중 무역전쟁과 코로나 백신접종의 효과에 따라 출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인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팔정도를 수행해야겠습니다. 이 중 정어(正語)는 우리 언론인이 숙명처럼 수행해야하는 길입니다. 정어(正語)를 행할 때 사바세계는 어지러움을 그치고 중도의 바른 세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나아가 정언정행의 일치를 보일 때 코로나 문제도 해결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웃에 따뜻한 위로 전하자

장유정 미소원 이사장



저희 미소원은 지난해 봉사와 나눔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택배와 우편을 통해 음식을 싸서 보내고 손편지를 적어 안부를 물었습니다. 재소자와 병자들 그리고 독거어르신, 수해로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상가들까지 모두가 저희의 이웃이었습니다. 코로나19 보다 더 두려운 외로움 속에 저희들의 나눔이 따뜻한 위로가 되길 기도했습니다. 저희 미소원은 올해도 멈추지 않는 자비 나눔으로 대승보살의 원력이 온 세상에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자리이타의 보살도가 곧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임을 명심 할 것입니다. 모두가 건강한 밝은 미래를 여는 날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부처님께 기원 드립니다.